B급 영광은 하나님께 모욕이다

(시편 115:1~18)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B급 영광은 하나님께 모욕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B급 영광은 하나님께 모욕이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불교인, 힌두교인, 이슬람인, 무속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일까요? 반대로 기독교인이 돈을 제일 못 벌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더해 기독교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을 보고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었다면 불교나 힌두교의 신들을 젖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먹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많이 획득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단해봅니다.

예를 든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선 돈에게 지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과 기쁨의 제1원인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의 싸움을 A급 매치라고 해봅니다. 이 A급 매치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돈에 패배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패배는 시작되다

가, 기독교인마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결정적 참패를 당하십니다.
A급 매치에 이어서 B급 매치도 있습니다. A급 매치에서 결정된 승자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A급 매치의 승자는 돈 건강 권력 자녀의 형통 부흥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제1원인으로 A급 매치의 승자가 결정되고 나면, 각종 종교의 신과 우상들은 이 승자를 얻기 위해 동원되기 시작하는 B급 매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자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택되기 위한 싸움이 B급 매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태생적으로 B급입니다.
하나님처럼 A급 매치에서 밀려나서 B급으로 강등당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타 종교인들을 전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하나님께는 B급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A급 매치의 승자는 돈입니다. 그 승자인 돈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써 하나님이 일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을 물리쳤다고 할지라도 B급 매치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A급 매치의 승자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B급 매치의 승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상태입니다.
'영광(榮光)'은 말 그대로 영예로운 빛으로서 일등에게 비추어지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B급 매치에서 이긴 영광은 하나님께 모욕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이 돈을 못 벌어서 하나님이 B급 매치에서도 져서 영광이 가려졌다면, 차라리 이 경우가 앞선 경우보다는 하나님께 덜 모욕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돈 버는 일에 연관됨으로서 참 신앙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B급 매치에 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돈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A급 매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A급 매치의 상대자가 이삭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빌어보자면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독자 이삭과 하나님이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기쁨이 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선택하는 A급 매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로 들었던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A급 승자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기독교인의 과제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는 돈과 무관한 만족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A급 영광은 드러나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돈에 사로잡힘이 없고, 돈이 안 들어와도 만족과 기쁨이 줄어들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돈을 이기신 것입니다. 돈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A급 영광은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나 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A급 매치로 우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돈이 안 벌리면 다 죽어가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데 웃을 수 있을 때에, 다른 이들도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을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모습이 반갑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A급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 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말이 나와야만 합니다. 상이 없을 때에도 상 받을 때처럼 감격하는 마음이 표현될 때에 하나님께는 A급 영광이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114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4편이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쓴 시였다면, 오늘 본문은 포로생활 중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역만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방 나라의 궁궐 안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우뚝 솟은 삶을 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주변의 이방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멸시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는 지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운명과 전쟁의 승패를 각 나라의 신들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무능함으로 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멸망한 고국에서 섬기던 여호와 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이방사람들의 눈에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던 선민 중의 한 사람이 오늘 시를 통해 자신의 고충을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능한 신으로 판명이 났는데 왜 그 여호

와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한 시인은 분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주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호소하고 있으나 결국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상황이 기적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적적으로 포로생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대로 귀환하고 난 뒤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 작업이 모두 힘들고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라는 것은 출애굽 때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벨론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야 선민으로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114편과 115편을 묶었습니다. 114편에서는 산들이 양처럼 움직이고 바다가 도망가는 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4절부터 우상들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B급 매치의 우승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신의 능력으로 생각했는데, 시인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붙이려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태생적으로 B급 매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A급 매치에서 결정 된 승자를 위해 봉사하는 하수들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하수들의 싸움에 포함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정작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우상숭배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B급 매치의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A급 매치에서 누가 승자가 되었기에 그 섬길 수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긴 A급 매치의 승자는 바로 풍요와 다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부자와 부흥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는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라이벌로 삼고 있습니

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다른 신들 중의 하나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상들은 마음에서 다른 신이 결정된 상황에서만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계명부터 나머지 계명들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다시 말해 1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계명도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제1원인으로 믿고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통찰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상들의 싸움판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우상들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애초에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풍요와 다산을 택할 것인지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촉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맞서는 라이벌은 재물과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A급 매치의 승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포로생활은 주체적으로 나를 위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생활에서는 기쁨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심으로서 선민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포로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면 오히려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살았다면 바벨론은 오히려 선민의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고 포로로 잡혀 갔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핍박 받고 쫓겨 다니면서도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도 돈으로 살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도 웃으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돈을 바라는 돈인이고 형통을 바라는 형통인이고 권력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도 주로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마제국의 고작 9%의 하층민만이 예수를 믿을 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9%의 하층민들의 마음에서 일등하심으로 영광 받으심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AD.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세상 가치가 없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진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앞서 112편에서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직선으로 보내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수원지와 연결된 첫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조차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17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서 15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B급 매치의 선수로 이야기하다가, 16절부터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시인 자신과 모든 선민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 드리는 입장이 되자고 말하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A급 매치의 우승자로서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게 된 자들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을 묻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전환에는 성전의 번제단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앞서 이방인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B급 매치의 우승자가 되셔서 A급 매

치의 가치를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그러한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A급 매치에 올려드리게 되는 결론으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만한 일을 생각하고 묻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B급 매치의 우승자로 모시려는 습성이 있는데 유전죄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A급 매치의 승자로 여기던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고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죽은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만족과 기쁨은 끝이 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A급 매치의 우승자로 모시고 사방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의 90%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B급 매치의 우승자로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A급 매치의 모든 우승자들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만 승자로 모심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